하나금융그룹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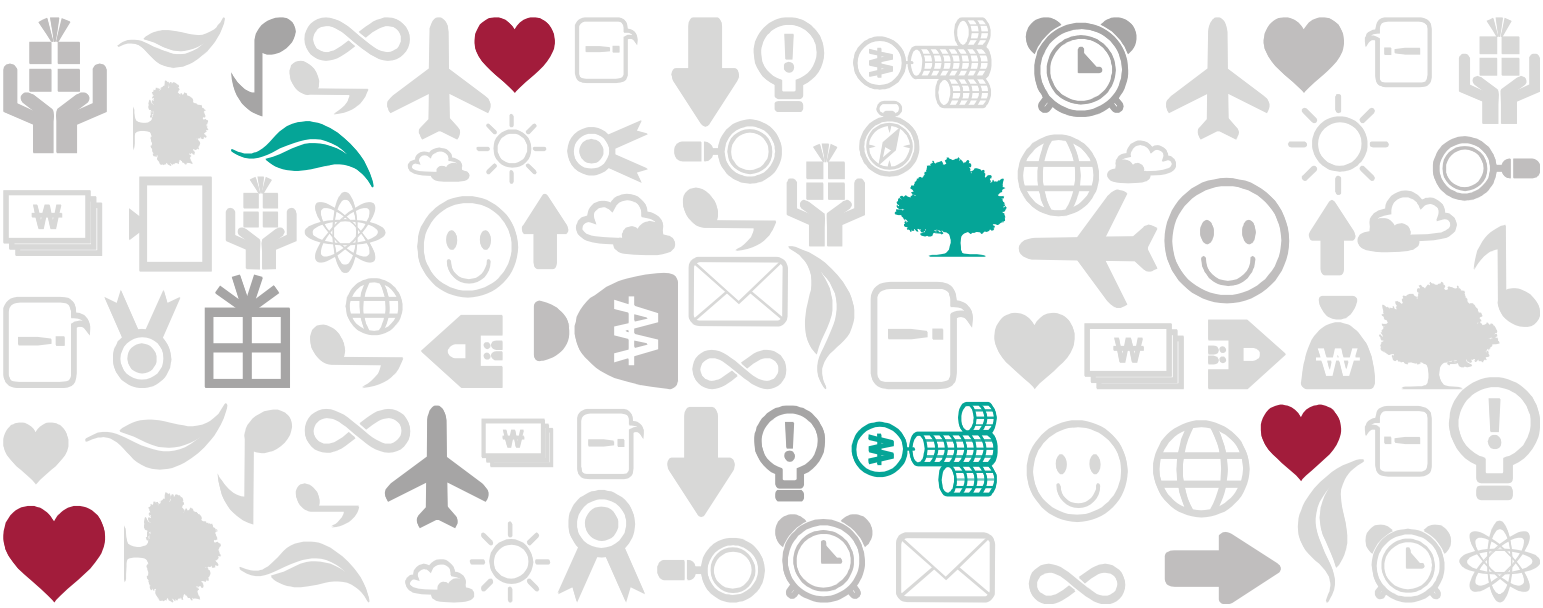
2014년 No.11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사적연금의 세제구조 내용과 시사점

일본의 증여 및 상속시장 동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사적연금의 세제구조 내용과 시사점 일본의 증여 및 상속시장 동향과 시사점	1
경제 트렌드	2015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엔저 심화 우려, 금리 하락압력 지속될 전망 엔저 리스크의 국내 파급효과에 유의 주식시장은 제한적 수준의 단기적 반등 예상	9
노후 재무 설계	건설사 재직 P씨, 짧은 노후 준비기간 고려 금융자산 확대 요구 금융자산은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채권형 및 대안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구성	17
국내외 단신	Mercer의 2014년 글로벌 연금지수, 한국 전년보다 낮은 43.6 고령자의 복지현황과 니즈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20
상품브리프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금 예금 상품, 연금수급통장	24
부동산 따라잡기	전세가격 불안은 국지적 현상, 자가수요와의 경쟁도 한 요인	26
행복한 노후디자인	역사와 전통이 깃든 전국의 소문난 빵집들 시간이 멈춘 곳으로 떠나는 여행	28
하나뉴스	하나은행, The Banker/PWM誌 선정 '2014 최우수 글로벌 프라이빗 뱅크' 상 수상 등	30
연금통계		31

국내 사적연금의 세제구조 내용과 시사점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정책당국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준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자기부담금의 연 4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2015년에는 300만원의 추가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은퇴 및 연금준비자들은 은퇴설계시 세제혜택이 부여된 사적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사들은 고객을 세분화 한 후 각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세제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은퇴설계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은 저성장·저금리 구조하에서는 연금의 세제혜택 매우 중요

최근 정책당국은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은 빠른 고령화에 비하여 짧은 연금의 역사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세제의 개편을 통해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과 같은 저성장 및 저금리 구조하에서 연금자산과 관련한 세제구조의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책당국이 발표한 내용 중 세제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사적연금의 세제구조를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은 통상적으로 납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부여

사적연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의 연금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수단으로 각 나라의 세제환경, 금융 및 연금환경 등에 따라 크게 납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 등 보통 3단계를 통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첫 단계인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근로자가 연금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기여자금의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자본이득, 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수령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근로자가 기여와 운용을 통하여 증식된 자산에 대해 노후에 연금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을 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말한다. 연금의 세제혜택이 3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각 단계

의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사적연금의 세제구조도 많게는 8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구조는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수령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는 형태이다.

연금저축계좌 납입단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

국내 사적연금 세제구조도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칙적으로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지출세 방식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수령단계에서는 세금부과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세제비적격 개인연금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는 일부 변형된 세제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납입단계에서의 세제구조를 보면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금액 중 자기부담금의 연 400만원 한도 범위에서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고, 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그렇지만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1,8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세 액공제한도도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정책당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대하여 개인연금저축과는 별도로 300만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연금계좌를 제외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6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납입금의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모두 원칙적으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도 연금계좌의 경우와 같이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투자수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과세는 연금수령을 늦게 할 수록 낮은 세율 적용

한편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

국내 사적연금의 세제구조

구 분		납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
퇴직연금	DC/IRP(자기부담)	세액공제	세금이연	연금소득과세
개인연금	세제적격	세액공제	세금이연	연금소득과세
	세제 비적격	세금부과	세금이연	세금면제
기타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세금부과	세금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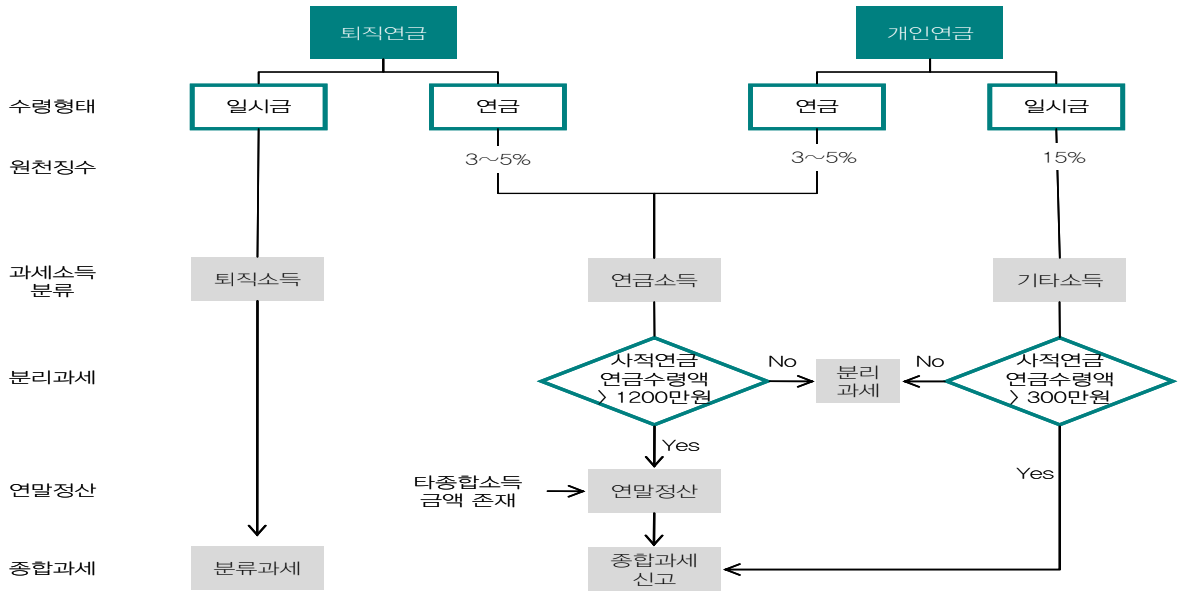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국세청 |

금외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령 시점에서 일단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후 지급되며 연금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연금수령 당시의 나이 및 유형에 따라 3~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지급하며 연금수령을 늦게 할 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이거나 종신형 연금의 경우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80세 이상이거나 퇴직소득의 경우는 최저세율인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원천징수 이후 연말정산 시점에서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단,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2013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 받는 일시금 등이 대상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DC형 · IRP에서 중도 인출되는 금액, 연금 수급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으나 소득세의 계산시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계산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속연수 동안 서서히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퇴직소득의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보다 낮은 한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세법에서는 기존 40% 정률공제

사적연금의 수령단계 세제체계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를 퇴직급여수준별로 100~15%로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액 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으로 동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타소득세 대상은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이 해당되고 통상 15%의 세율적용

기타소득세는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연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연금외수령은 12%의 세율이 적용 된다.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 퇴직연금(DC 및 IRP의 자기부담)의 납입금 및 운용수익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일시금 수령의 인출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소득금액(소득공제액 및 운용소득)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천재지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외수령액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2015년부터는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2%)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소득세(3~5%)를 부과하여 분리과세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외수령액은 종합과세로 합산신고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은퇴설계시 세제혜택이 부여된 사적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먼저 은퇴 및 연금준비자들은 최근과 같은 저성장 및 저금리 경제상황하에서 세제혜택이 부가된 사적연금보다 경쟁력을 가진 양호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노후 준비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은퇴설계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15년 말까지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15년부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를 은퇴설계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5세 이상 사적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수령액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도록 수령시기는 개인의 소득흐름에 따라 분산하고, 수령기간은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하도록 은퇴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세제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구조가 사적연금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수령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수령시기를 개인의 소득흐름을 고려하여 분산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들은 은퇴 및 연금준비 고객들에게 고객의 소득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한 후 사적연금의 세제구조를 고려하여 은퇴설계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하 및 55세 이하의 그룹은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이 중요하고, 연금수령 연령대 고객의 경우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관련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확대된 세제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부담의 완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증여 및 상속시장 동향과 시사점

수석연구원 이 경 진
(cygnus@hanafn.com)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일본의 노년층이 대부분 자산을 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wealth)의 세대이전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현재 보유자산의 증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탁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일본과 유사한 사회 · 경제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증여 · 상속 등과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만큼 효과적인 자산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일본은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의 젊은 세대로의 이전에 대한 관심 증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일본은 고도 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한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wealth)의 규모가 젊은층 대비 크기 때문에 고령층에 많은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2009년 기준 60대와 70세 이상의 가계 총자산이 각각 4,925만엔, 5,024만엔으로 전체 평균인 3,588만엔 대비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가계 총자산이 약 3.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일본 고령층 인구의 보유 자산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50대까지 보유 총자산이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60세 이상의 보유 자산 규모는 40대보다도 낮아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저금리 · 저성장 추이 지속 등 사회 · 경제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에게 편중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자산이전과 관련된 시장인 증여/상속시장 규모를 살펴보고, 최근 금융기관에서 세대간 증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소비와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국내의 현재 상황과 비교를 통해 향후 국내 금융기관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통한 자산이전 촉진

일본의 60대와 70세 이상 가계의 저축액은 각각 2,048만엔, 1,987만엔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계의 평균 저축액인 4,760만원을 약 4배 이상 웃도는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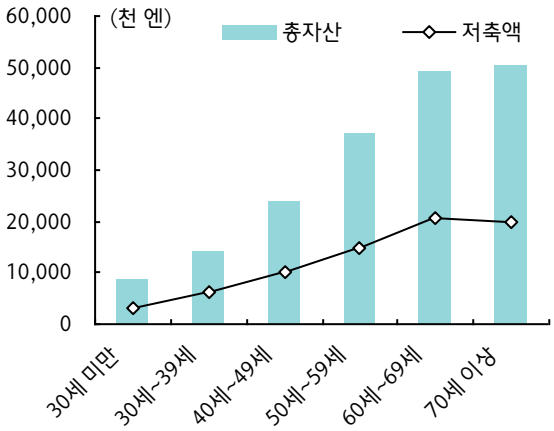
이렇듯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대부분을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보니 경제 전반적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해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고령층의 부를 젊은층으로 이전하고, 또 이전된 자산이 원활하게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있다.

이를 목표로 일본은 증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상속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를 변경하고, 금융기관들에 이에 대응하여 증여와 상속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편이다.

우선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1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고령층에서 젊은층으로의 자금이전을 촉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상속세는 기초공제가 축소(개정 전 5,000만엔→개정 후 3,000만엔)되는 등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증여 비과세 혜택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증여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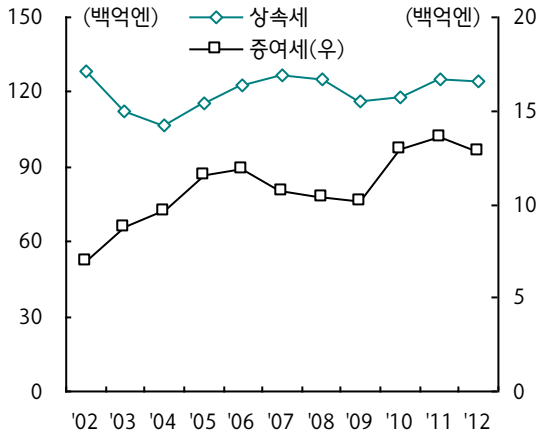
일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일본 상속 및 증여세는 전체 세수의 3.1%인 1.5조엔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는 1.2조엔이고, 증여세는 0.3조엔으로 상속세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1.8조원, 3.2조원인 것과 단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보다 증여세 비중이 높은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일본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연령별 가계 총자산 보유 규모



자료 : 일본통계청

일본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세액 추이



자료 : 일본통계청

교육비, 주택구입 자금 증여 등에 비과세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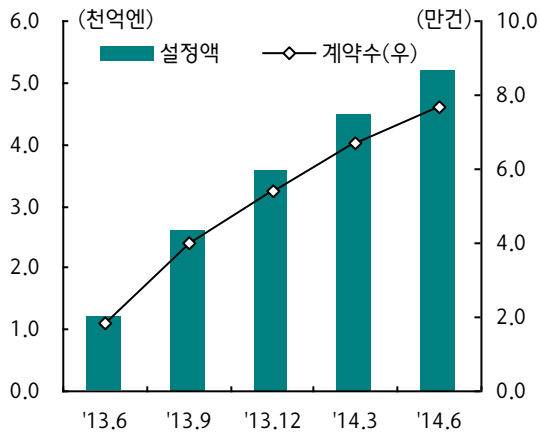
일본은 작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교육비를 목적으로 한 자금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신탁은행에서는 '교육자금증여신탁' 이라는 신탁상품을 출시하여 정책 취지에 맞게 고령층 부의 손주세대로의 자산 이전 및 소비촉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동 제도의 경우 신탁협회가 먼저 제안하여 받아들여져 세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500만엔의 비과세 혜택(이 가운데사교육비는 500만엔까지 가능)을 주고 있다. 동 제도의 경우 세수 확보 등의 문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신탁협회에서는 기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말 세제위원회에서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자금증여신탁 상품은 조부모(위탁자)가 손주(수익자)에게 자금을 일괄 증여(비과세)하고, 손주가 교육비 영수증을 신탁은행에 제출하면 그에 따라 금액이 지불되는 방식으로 신탁은행이 수탁자로써 동 자금 및 전체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2014년 9월 기준 전체 설정액 규모는 약 5,200억엔으로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비과세 한도가 매년 축소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말에는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 기한을 연장하여 일반주택의 비과세 한도를 2015년도에만 2,500만엔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교육자금 증여 신탁 규모 추이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유언 및 상속 관련 상품 증가세 지속

일본은 고도성장기 때 축적된 부의 규모가 워낙 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상속관련 상품 출시를 많이 해왔다. 특히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유언 및 상속관련 업무를 취급하여

MUFJ신탁의 유언대용신탁 '계속안심신탁' 개요

구분	내용
대상	개인고객
신탁금액	200만 엔 이상 3천만 엔 이하
계약기간	5년 이상 30년 이내
운용방법	금전신탁 5년물을 선택해 합동 운용 (원금 보장)
수수료	무료
운용보수	금전신탁 5년물 운용수익-예정배당액

자료 : MUFJ 신탁은행

왔으며 그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유언장 보관만 하는 업무는 2013년 기준 5,824건으로 약 20년 전인 1994년 6,399건과 비교하여 그대로지만 유언장 보관 및 집행업무는 동 기간 11,134건에서 82,62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산정리 업무는 517건에서 3,475건으로 증가하는 등 유언관련 취급 업무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20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취급 가능해진 이후 최근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신탁은행과의 계약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설정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자산가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MUFG 신탁은행, Mitsui Sumitomo 신탁은행 등 대형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없앤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존 부유층만의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어 상속 업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현재의 상속 건수 전체의 4%에서 6%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증여 및 상속 등 효과적인 자산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국내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고령자가 축적한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증여 관련 비과세 등에 대한 제도 도입은 사회 정서상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기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도입한 제도 및 상품들을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와 함께 그 어느 국가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 저성장 기조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제 측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와 관련한 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는 등 일본과 유사하게 제도 개정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사회정서상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한 논의는 다소 금기시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신탁회사가 관련 신탁상품을 취급하는데 운용상 제약이 있어 실적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효과적인 자산이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차원의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일본 신탁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 양육비용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은 국내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국내 금융회사가 상속형 신탁을 운용하는데 제한적으로 집합운용을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관련 상품 취급 유인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고령층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한 증여 및 유언 · 상속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함으로써 현재 고객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녀세대 고객까지 확보하는 등 자산이전 관련하여 고객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연구위원 김 영 준
(kimekono@hanafn.com)

"2015년 국내경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3.7%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분기까지 시중금리의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흑자, 대외신인도와 외환건전성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신흥국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3%대 중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여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확대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변수는 美 연준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유로존 디플레이션 리스크, 中 경기 모멘텀 상실 우려, 중동 · 동유럽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있다.

미국경제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 주도로 경기 상승세 이어질 전망

2015년 미국경제는 고용시장 회복 및 디레버리징 종료로 인한 가계소비 증가와 기업 수익성 개선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 등 민간부문 주도로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적자 축소로 공공부문의 지출도 회복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용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와 연준의 금리인상 스케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이전 성장률(2.8%)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로존 경기회복을 압박할 우려

유로존 경제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허약해진 펀더멘탈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2/4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위축되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비교적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기록한 반면, 유로존 3대 경제권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유로존 경제는 유로화 약세, 미국경기 회복 등 수출환경 개선과 ECB의 경기부양 기조지속,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 모멘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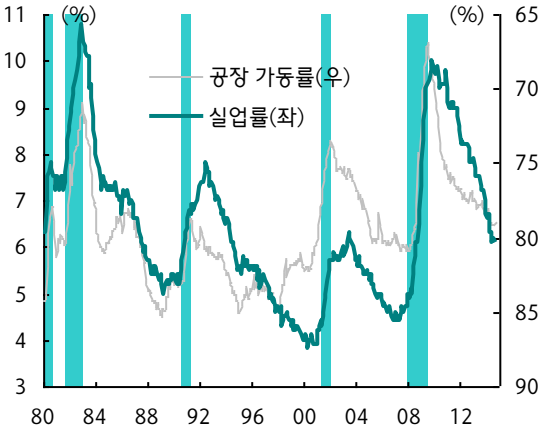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

소비세율 인상으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8% 감소하는 등 순항하던 일본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해외 생산비중 확대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임금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가계지출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기조 지속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추가인상과 고용시장 개선 미흡, 국내투자 부진, 인플레 기대심리 약화 등으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 구조조정과 미니 경기부양이 반복될 중국경제

미국 실업률 및 공장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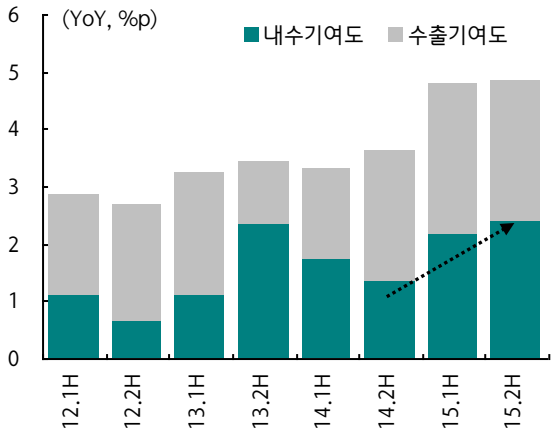
주 : 음영은 경기침체기
자료 : Bloomberg

중국경제가 구조조정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인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선별적 금융완화를 단행했으며, 이에 힘입어 3/4분기 중국경제가 7.4% 성장하는 등 2015년 중국경제도 성장모형 전환과정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구조조정으로 지표가 악화되면 정책당국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 소규모 경기부양에 나서는 움직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성(tolerance)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의지는 확고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2015년 국내경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수출호조로 잠재성장률 수준(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부재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존재한다.

한국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 및 수출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책당국의 가계소득 확대 세제, 세월호 기저효과, 부동산 규제완화 및 배당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 확대, 저물가 환경 지속, 원화강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실질구매력도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담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인상 등의 증세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계부채 부담과 빠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민간소비의 개선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채산성 악화, 유휴설비 등으로 설비투자 심리회복 어려워

2015년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부진 장기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석유화학 · 철강 등의 유휴설비 부담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해외투자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건설투자는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훈풍과 SOC 예산확충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 증가율 및 BSI 설비투자 전망

자료 : 한국은행

수출 증가세 이어질 전망이지만,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원/엔 환율 하락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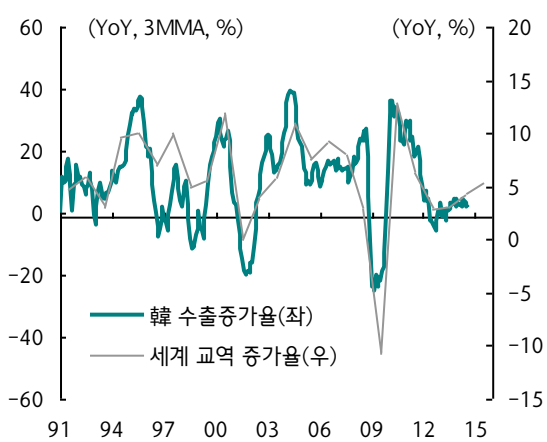
2015년 수출은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원/엔 환율 하락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와 주력품목의 품질경쟁력 유지, 선박수출 회복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도 수출확대, 내수회복, 원화강세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하겠지만, 건설수지 흑자와 투자부진으로 여전히 760억 달러(GDP의 4.8)% 수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저물가기조 이어질 전망

2015년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으로 인한 마이너스 GDP 갭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농축수산물 가격변동성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원화강세,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으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5~3.5%)를 3년 연속 하회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 및 韓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IMF,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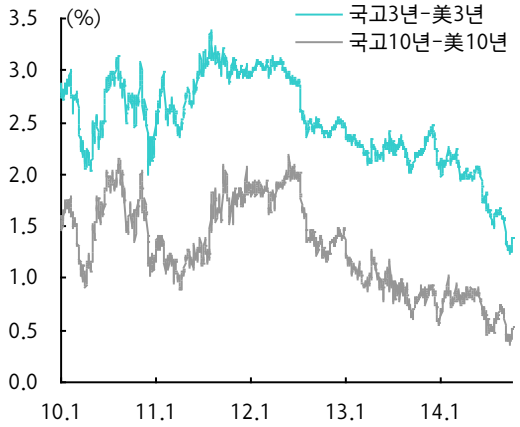
1분기까지 시중금리 하락 압력 지속,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 예상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금유출 확대 가능성 및 가계부실 우려 증대로 기준금리는 상당기간 동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금리 인하 일단락 이후에도 단기금리는 하락 압력이 지속되며 당분간 금리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준 테이퍼링 종료와 재정정책 확대 여파로 장기금리는 하락폭 제한되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예상된다. 시중금리는 재정확대 및 통화완화 등으로 성장률 및 물가상승 압력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1/4분기 이후 완만한 반등 압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속에 달러화 공급우위를 반영하여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대규모 경상흑자 기록,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이어 온 원/달러 환율은 2015년에도 달러 공급우위 지속, 대외신인도와 외환건전성 개선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연말에는 985원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단,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안요인 잔존 속에 단속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금리차 추이



자료 : Bloomberg

저금리 환경 지속 등으로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반면 Wealth Map 재편은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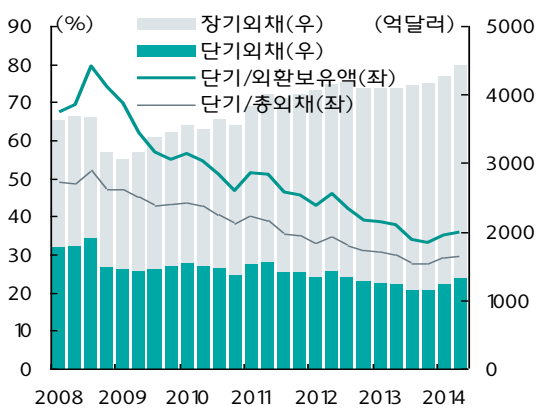
경기회복 다극화, 끝장 경기부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내년도 경제 및 금융환경전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금리 환경 지속,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유도 등으로 가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차환대출 증가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단기 쏠림 현상과 저신용층 중심의 추가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향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초저금리 환경 지속과 고령화 진전에 기반한 투자수익률 제고 목적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위험 · 중수익 상품 수요 증대, 연금 · 보험상품 및 월지급식 상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셋째, 국제 자금흐름의 변동성 위험 확대 속에 국내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그동안 급증한 채권자금의 이탈 가능성과 환율의 변동성 심화에 따른 환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韓 장단기 대외부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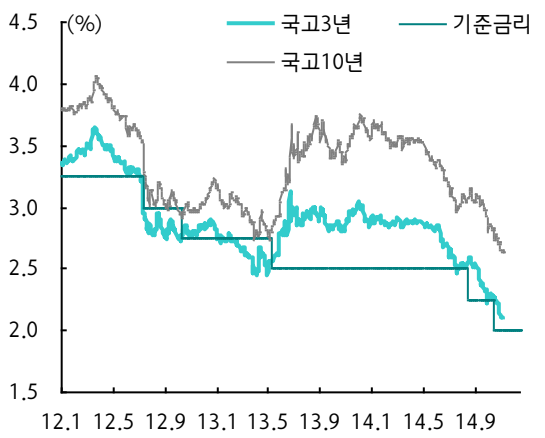
엔저 심화 우려, 금리 하락압력 지속될 전망

"엔저 심화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로 인해
시장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지속"

10월 시중금리는 9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 정부의 정책 요구 등을 배경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되며 전구간에 걸쳐 하락압력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10월 금통위는 저물가 장기화 우려, 성장 모멘텀 둔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부진 등을 고려해 8월에 이어 추가 금리인하(2.25%→2.00%)를 단행하였다.

한편 10월 글로벌 채권시장 역시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차원의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강세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10월 말 美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결정에도, 상당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키로 하는 등 시장 예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책 행보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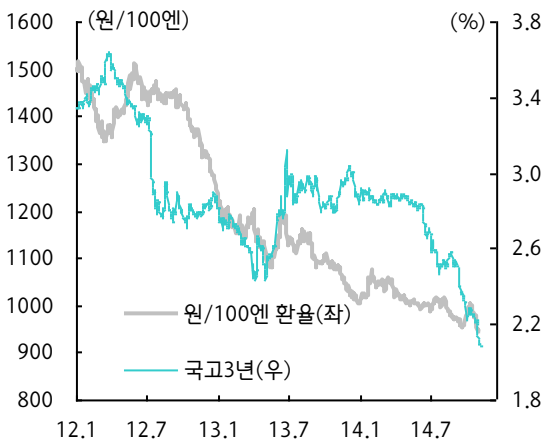
자료 : Bondweb

다만, 10월 말 日 BOJ가 디플레이션 해소 지원 등을 배경으로 예상밖의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위험선호 현상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채권시장에는 엔저 심화에 대응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부각되며 금리 하락압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11월 금통위는 엔저 심화에 따른 수출 둔화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효과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엔화 약세를 금리 조정을 통해 대응하기 보다, 외환시장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 정책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 개선이 미약한 상황에서 엔저로 인한 수출 둔화 및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가능성은 통화당국의 고민을 증대시킬 것이다.

11월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엔저 심화에 따른 국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3년 이하의 단기 영역 금리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일부 반영하며 하락압력이 강화되고, 연저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 영역은 레벨 부담 등으로 낙폭이 제한됨에 따라 11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방향성 설정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엔 환율 및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자료 : Bondweb

> **엔저 리스크의 국내 파급효과에 유의**
>
> "원·엔 동조화의 심화 속에 일본發 불확실성 향방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

10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1,070원대로 상승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 통화가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2.25%→2.00%) 이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환율은 하락 반전하였다. 더욱이 中 경제지표 개선(3/4분기 GDP +7.3%, YoY),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공세 약화 및 네고물량 유입 등도 환율 하락세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1,04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환율은 10월말 연준의 QE 종료 및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일본은행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급반등하였다.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된 상황에서 출구전략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美 금리인상 시점 및 속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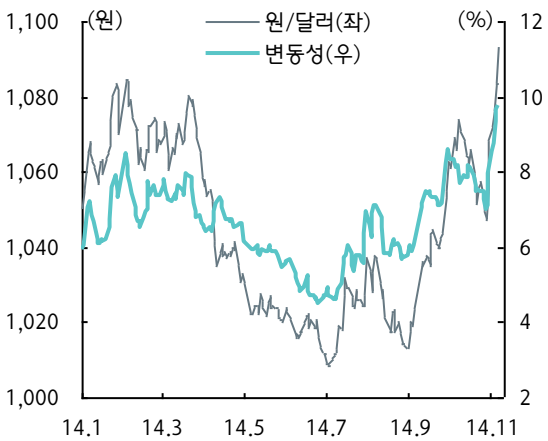
연준과 다르게 BOJ는 전격적으로 질적 · 양적 완화 확대를 결정하였다. 더욱이 BOJ 총재의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추가 완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엔저 리스크가 부각(원 · 엔 동조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상이 공세적인 긴축이 아닌 금리정책 메커니즘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BOJ의 경우 일본내 엔저 부작용 우려, 국제 환율갈등 소지 등으로 추가 통화부양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무역 및 경상흑자 기조 지속,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양호한 흐름, 韓 CDS 프리미엄의 하향 안정세 등도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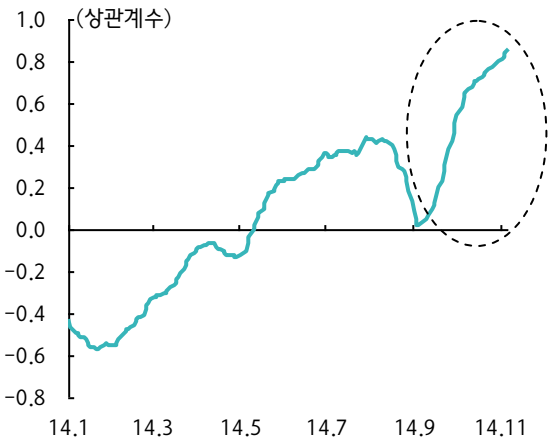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및 통화정책 향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1,100원선 테스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반락 여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 및 원화의 내재적 변동성



주 : 내재적 변동성(원/달러)은 1개월물 기준
자료 : Bloomberg

원화와 엔화의 시변(時變) 상관계수



주 : 상관계수는 120거래일 기준
자료 : Bloomberg

> **주식시장은 제한적 수준의 단기적 반등 예상**
>
> "가격메리트가 높은 낙폭 과대 대형주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

10월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KOSPI 대형주가 최근 고점 대비 –7.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규모는 2.6조원으로 2013년 6월(5조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유가 하락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정유/화학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제약/증권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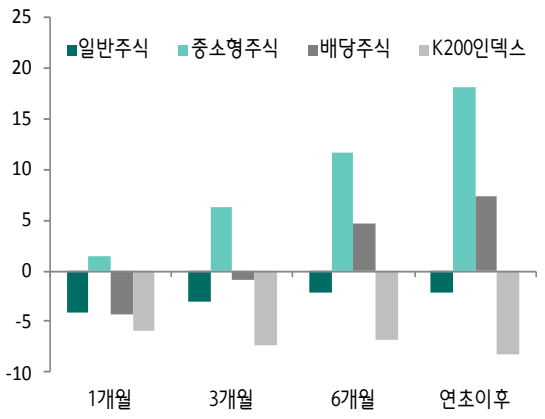
11월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로 인한 가격메리트 부각으로 단기적으로는 순환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모멘텀 약화,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둔화, 국내 기업 이익싸이클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반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격메리트가 높은 낙폭 과대 대형주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진국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세 예상

선진국 증시는 유럽의 경기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낙폭이 확대되었으나,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기대가 살아나면서 반등했다. 미국은 낙폭을 거의 회복했지만, 경기 우려가 여전한 유로존은 낙폭의 50% 반등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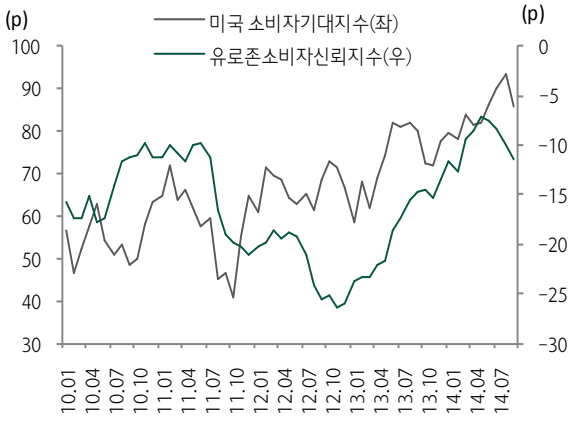
11월 미국 증시는 주요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기업실적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으로 확산된 글로벌 경기우려가 다소 완화되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은 독일의 재정확장과 관련한 유로존과 독일의 대립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유로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가 예상보다 양호해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차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매력 이외 큰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유형별 수익률



자료 : 제로인, 하나대투증권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신흥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감소했으나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

10월 신흥국 증시는 선진국보다 하락세가 미리 진행되었으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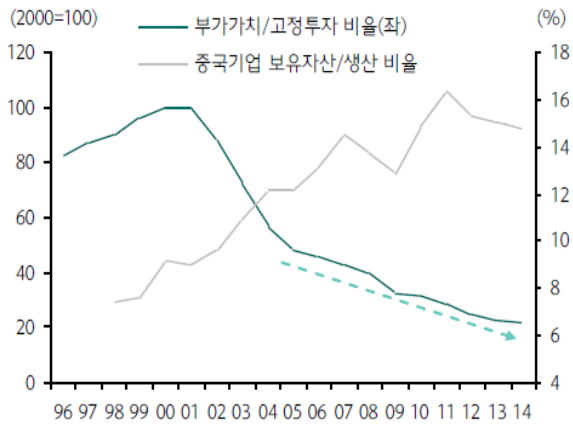
11월 중국 증시는 4분기 중국경제, 부동산 침체와 재고조정 지속으로 3분기 대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및 통화정책 완화효과는 최소 2015년 상반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모멘텀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도는 모디노믹스 이후, 인도로의 자금 유입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제조업 경기 호조 지속, 소비자물가 수준 안정세에 따른 금리동결 전망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재정수지 적자 등에 따른 환율 약세, 소비자 물가 목표치 상회 등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경제 하방 압력의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한 루블화 환율의 사상 최저치 기록,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세 등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는 계절변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리츠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

10월 원자재 시장은 농산물과 귀금속의 반등이 있었으나,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리츠 지수는 9월 큰 조정이 투자기회로 작용하여 7%대의 단기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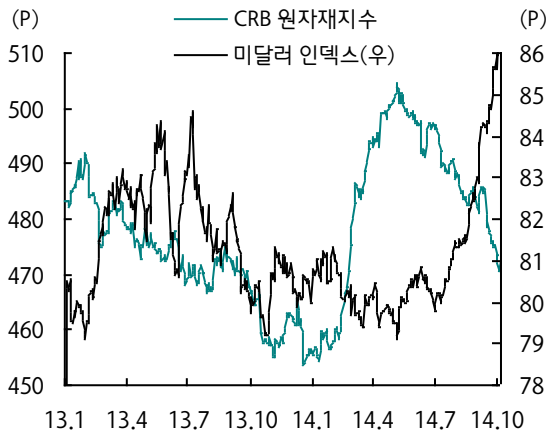
11월 원자재 시장 중 원유는 OPEC 감산 여부와 이란 제재 완화가 가격 향방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산물은 북미수확을 저점으로 가격 하락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귀금속 연말수요와 천연가스 난방 수요 등 계절변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 리츠는 단기조정은 할인매입의 기회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추가상승의 탄력은 떨어지겠지만 투자가치의 재확인으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다운사이징 가속화



자료 : CEIC, 하나대투증권

미달러 지수 및 원자재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건설사 재직 P씨, 짧은 노후 준비기간 고려 금융자산 확대 요구

건설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P씨(52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3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P씨가 8년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매월 약 36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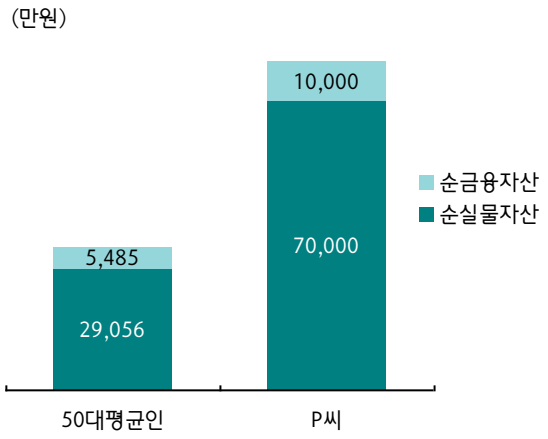
P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사전 정산으로 없는 상황이다. 개인연금은 연금신탁과 연금저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으며, 은퇴 후 매월 70만원 정도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P씨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 7억원 규모의 순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은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P씨는 순실물자산이 50대 평균인 대비 많은 편이며, 순금융자산도 적진 않으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여 투자 가능한 순금융자산의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약 156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약 3억 4,299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1억원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액 1억원을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5.03%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안정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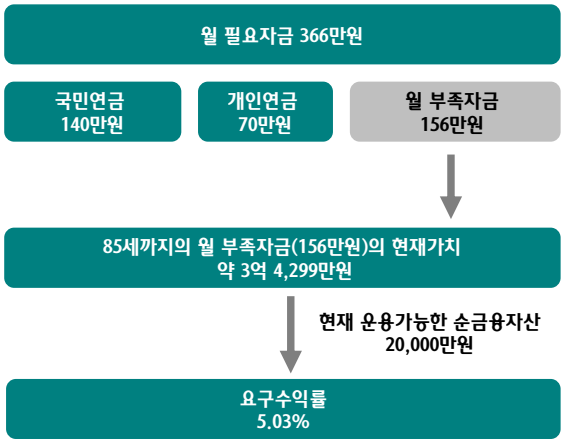
P씨는 50대 평균에 비해 순실물자산 및 순금융자산 모두 많은 편이다. 다만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8년으로 노후 준비 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금융자산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순금융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만 이루어지더라도 원활한 노후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50대 평균인과 P씨의 재무상태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P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은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P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5.03%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P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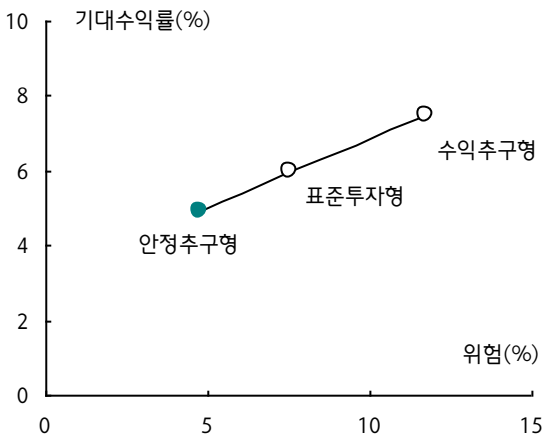
11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8.0%, 국내채권 22.5%, 해외채권 5.0%, 대안형자산 37.0%, 현금성자산 27.5%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포트포리오 구성이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은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및 대안형자산에 투자하며, 적정한 수익 추구를 위해 주식에도 일부 투자한다.

안정추구형 전략은 채권과 같은 안정형 위주의 상품으로 운영되는데, 국내 채권의 경우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나 대내외 경기우려로 향후 금리 인하 기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채권 수급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 하향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해외 채권은 美 테이퍼링 종료에도 금리 인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ECB의 추가완화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은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가격 메리트는 있으나 상승모멘텀이 부족해 배당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중위험형 및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자산 및 현금성자산 비중 또한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8.0	12.0	25.0
선진국주식	–	7.0	20.0
이머징주식	–	6.0	15.0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7.0	37.5	19.5
현금성	27.5	15.0	8.0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상품은 채권형 및 대안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구성

11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 대비 동일한 비중을 가져가나,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국내 채권형 상품 중 물가연동국채 비중을 축소(10%→7%)하고 흥국멀티플레이채권의 비중을 확대(12.5%→15.5%)한다.

포트폴리오의 8.0%를 차지하는 국내주식은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원칙을 중시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배당수익률이 높고 구조적 성장가치와 내재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트러스톤장기고배당(주식)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 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우량 회사채에 60%, 기업어음 등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정통 회사채 펀드인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7.5%를 투자하는 대안형 중 10%를 차지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또한 10.0%를 차지하는 혼합형 상품은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주식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에 투자하며, 나머지 15.0%를 차지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종MMF(S-26호) C에 27.5%를 투자한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에셋플러스	3.0%	6개월	8%
		가치(배당형)	트러스톤장기고배당(주식) A	트러스톤	5.0%	3개월	5%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7.0%	9년	연 4%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	흥국	15.5%	1년	3%
		해외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	미래에셋	5.0%	6개월	3%
	대안형	중위험형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	유리	10.0%	6개월	3%
		혼합형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	하이	10.0%	6개월	4%
		구조화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7.0%	1년	연4%
	현금성	-	하나UBS 신종 MMF(S-26호) C	하나UBS	27.5%	단기	연2.1%
	합계				100.0%		
개인연금		개인연금펀드에 월 30만원씩 납입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Mercer의 2014년 글로벌 연금지수, 한국 전년보다 낮은 43.6

"향후 연금지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개선, 가계저축률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사적연금관련 기관들의 위험관리 정책 수립 의무화 등이 필요"

Mercer는 2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14년 글로벌 연금 지수를 발표하였다. Mercer는 2009년부터 매년 주요 대상국의 연금에 대해 적절성, 지속가능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전년대비 지수가 소폭 하락하며 43.6을 기록하였고, D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연금지수는 크게 적절성, 지속가능성, 충실성 등 3개의 하위 지수로 구성되어 측정된다. 즉 글로벌 연금지수는 적절성을 40%, 지속가능성을 35%, 충실성을 25%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그리고 적절성은 연금 수급, 저축, 세제혜택, 연금설계, 자산의 성장 등의 요소를 통하여 평가되고, 지속가능성은 연금의 커버리지, 총자산, 기여도, 인구통계, 정부의 재정상황 등의 요소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다. 충실성 부문은 규제상황, 지배구조, 안전장치,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의 요소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결과를 보면 연금지수는 크게 A~E까지 5그룹으로 범주화되고 있고, B와 C그룹은 다시 각각 2개의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A그룹은 가장 양호하고 우수한 연금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덴마크가 유일하게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그룹은 A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이 요구되는 그룹으로 B+등급과 B등급으로 세분화가 되고, B+등급으로는 호주, 네덜란드가 분류되고 B등급으로는 영국, 캐나다, 칠레 등이 분류되고 있다. C그룹은 연금시스템상 약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한 위험과 결점도 있어 이들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그룹으로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D그룹은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이 속해있는데 주요한 약점 또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생략된 연금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국가별 글로벌 연금지수 분포

등급	지수	국가	비교
A	〉80	덴마크	– 양호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충실성을 가진 튼튼한 연금시스템을 지닌 국가
B+	75~80	호주, 네덜란드	– 많은 장점을 가진 건전한 연금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A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가진 국가
B	65~75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칠레, 영국, 싱가포르	
C+	60~65	독일, 아일랜드	– 약간의 장점을 가진 연금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한 위험과 개선되어져야 할 결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닌 국가
C	50~60	미국, 프랑스, 폴란드,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브라질	
D	35~50	이태리,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인도	– 약간의 바람직 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한 약점 또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생략된 연금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 의심되는 시스템을 지닌 국가
E	〈35	–	–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 초기단계의 초보적인 연금시스템을 지닌 국가

자료 : Mercer

향후 개선되지 않으면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등이 의심되는 그룹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글로벌 연금지수가 43.6으로 D그룹에 분류되고 있다. D그룹은 연금지수가 35~50의 범주에 속하는 그룹인데 우리나라는 D그룹에 속한 7개 국가들 중 인도(43.5)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연금지수의 하위지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에 비하여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충실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같은 D그룹에 속하는 비교대상 국가 중 지속가능성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2위로 양호하였지만 충실도에서는 6위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적절성에서는 5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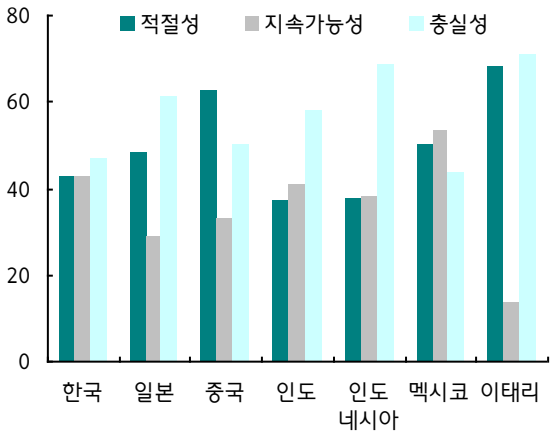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연금지수 변화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4.7이던 지수는 2013년 43.8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43.6으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 부문만 소폭 상승한 반면 적절성과 충실성은 낮아지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2012년 42.3에서 2014년 42.5로 상승하였고, 적절성과 충실성은 각각 2012년 45.1, 47.5에서 42.6, 46.7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발전초기 단계에 있지만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및 개선, 낮은 연금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수준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금기여 수준의 증가에 따른 자산수준의 증가,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의무사항의 개선 등이 연금지수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순 소득대체율의 감소, 가계저축률의 하락 등은 연금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금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순 소득대체율, 가계저축률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연금지수의 하위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충실도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적연금관련 기관들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연금가입자들에 대해 주요자산 구성을 포함한 연례보고의 의무화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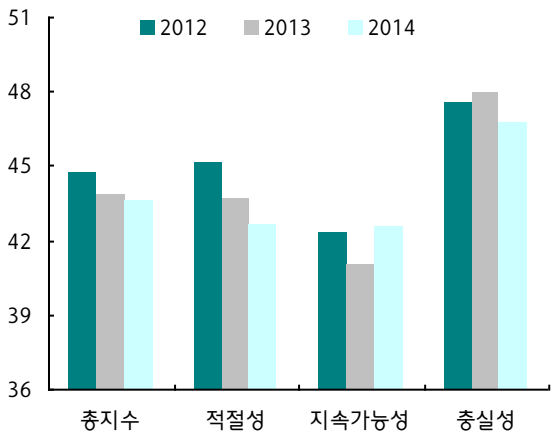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Mercer, 2014. 10)

한국과 같은 그룹 국가의 세부항목 지수 비교



| 자료 : Mercer

한국의 글로벌 연금지수 변화 추이



| 자료 : Mercer

고령자의 복지 현황과 니즈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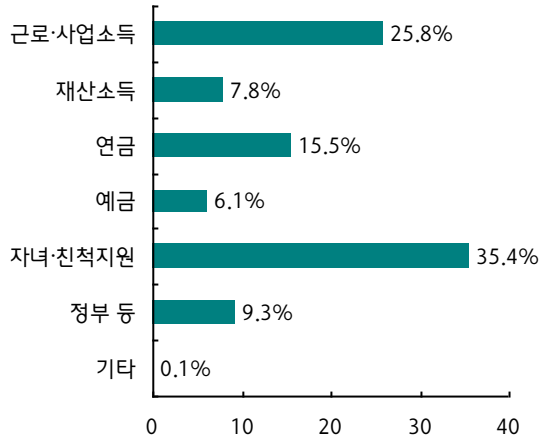
"고령자들은 노후 생활비로 여전히 자녀 및 친척에 높은 의존을 보이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은 지난 9월 '2014년 고령자 통계'를 통하여 고령층의 복지 수준 등 상황과 니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생활비를 자녀 및 친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고, 근로 및 사업소득(25.8%), 연금 및 퇴직연금(15.5%)순의 방법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및 친척을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재산소득이나 예금을 통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통하여 지원받는 대상자는 2013년 기준 37.6만명에 이르고, 총 수급자 중 29.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 및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수급자는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5.7%가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월평균 42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포함한 노후준비로는 65세 이상 가구주의 44.9%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 23.7%, 부동산운용13.9%, 기타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등) 1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관련 해서 고령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인 어려움 53.0%, 외로움 및 소외감 14.1%, 소일거리 없음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하여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등에 대하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조사에서는 건강검진이 30.2%로 높은 니즈를 보였고, 간병서비스 25.9%, 가사서비스 19.2%, 취업알선 8.4%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 수록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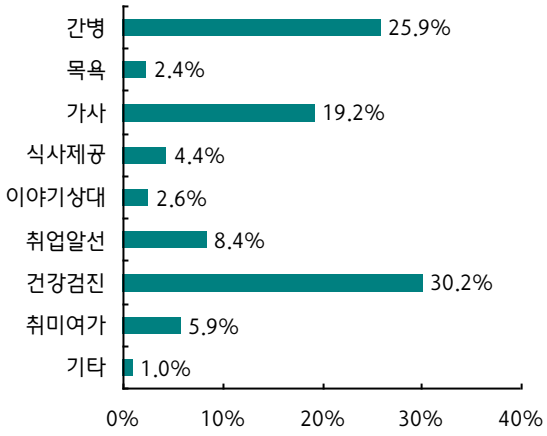
("2014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4. 9. 29)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주 : 65세 이상 고령층
자료 : 통계청

고령자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주 : 기타는 정보화 등 각종 교육 포함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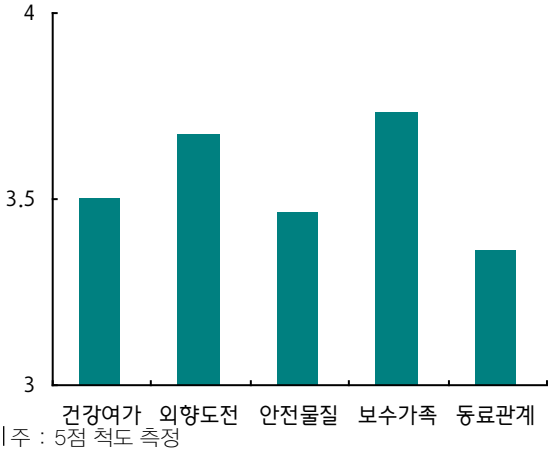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의 라이프스타일은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를 통하여 성공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성공적인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라는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와 관련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노후준비도를 매개효과로" [1] 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노후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년기의 라이프스타일 추구는 건강여가추구, 외향도전추구 등 하위요소로 5개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보수가족추구가 5점 척도 측정에 3.73으로 가장 높았고, 외향도전추구는 3.67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여가추구, 안전물질추구, 동료관계추구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보수가족추구에서는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외향도전추구 요인에서는 노년에 일하는 것을 즐기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여가추구 요인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별 추구 정도



주 : 5점 척도 측정

자료 및 1) 신근영,고재욱,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노후준비도를 매개효과로," 2014. 10

노후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는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 요인에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의 적절한 해소가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다.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부 및 동료간의 유대관계 유지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노후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절약이나 보험 등에 대한 가입을 중요시하였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의 요인에서는 지인 등 주위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의 요인에서는 자기성찰과 규칙적인 운동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에 있어서는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이 중요하였고, 자녀 성공을 통한 만족하는 삶에서는 자녀들의 안정 및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노년기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준비 및 성공적 노후간에 상호 긍정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년기 적절한 라이프스타일의 유지는 노후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4. 10)

연금수급통장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금 예금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 수급 시 각종 혜택 제공

기존의 연금수급통장은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 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사적연금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사적 연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수급통장의 출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금수급통장은 월급통장과 마찬가지로 연금수급자가 해당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정하면 이체 수수료, ATM 출금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우대금리, 무료 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고령자 특화 금융 상품이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에서 연금통장에 적용하는 금리는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에 비해 최저 0.1%에서 최고 3.0%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할 때 주거래 고객 확보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도 퇴직 후 월급통장이 없어도 각종 수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국민연금안심통장, 사학연금안심통장이 유사

한편 이러한 연금수급통장과 유사한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안심통장과 최근 출시된 사학연금안심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및 사학연금안심통장은 각각 국민연금 수급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이다. 즉, 일반적인 연금수급통장과는 달리 국민연금 혹은 사학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수급은 모두 가능하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연금통장은 월 수령액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는 반면 이들 안심통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 금액인 월 150만원까지만 해당 통장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금통장 특징 비교

	연금통장	국민연금/사학연금 안심통장
가입 대상	모든 종류의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사학연금 수급자
수령 한도	없음	월150만원 한도
통장 대출 한도 약정	가능	불가능
압류대상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공통점	각종 혜택 제공 – 우대 금리 적용 (일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 + α) –수수료 면제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ATM 이용 수수료 등)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하나 행복 knowhow 통장

연금이체,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시 수수료 우대

최저 연 0.1%[주] ~ 최고 연 2.0%[주]

[주]보통예금/저축예금 기본금리 [주]연금이체 시 연 1.7% + 우대금리 연 0.3% (2014.10.1 현재, 세전)
※ 우대금리 연 0.3% : 이 예금으로 연금 수급하고, 하나은행 적립식 예금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또는 하나 SK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매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 적용

이체(수급) 대상 연금 종류

-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및 하나은행 예보기지 대출금
- 하나은행에 가입된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예금, 연금관리)연금

수수료 우대 요건

- 이 예금으로 고객이 지정한 날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 이 예금에서 하나SK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 이 예금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시
- 이 예금에서 각종 공과금 2건이상 자동이체 시

수수료 우대 서비스

- 전자금융수수료(타행이체 및 납부자 자동이체 포함) 무제한 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시 월 10회 수수료 면제

※ 이 예금 가입 조 이체 연금이체 또는 수수료 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코자 이용록 시 연금이체 우대 이자율 및 수수료 우대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15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하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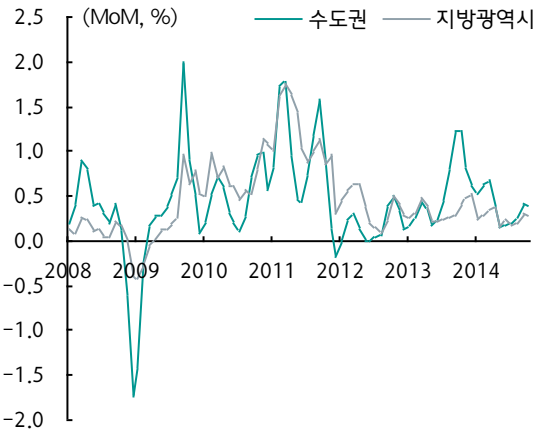
> **전세가격 불안은 국지적 현상, 자가수요와의 경쟁도 한 요인**
>
> "수도권 주요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이사철 가격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

지난 10월말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재건축 이주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월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중장기 대응방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난 7.28대책 및 9.1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매매시장 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을이사철을 지나며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두고 차린 것은 많으나 정작 먹을만한 요리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균형을 맞추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장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만한 강력한 조치는 없다는 의미이다. 저금리 시대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한 후 월세를 받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전세를 여전히 선호하는 반면, 전세주택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공급이 감소해 전세가격이 오늘 수 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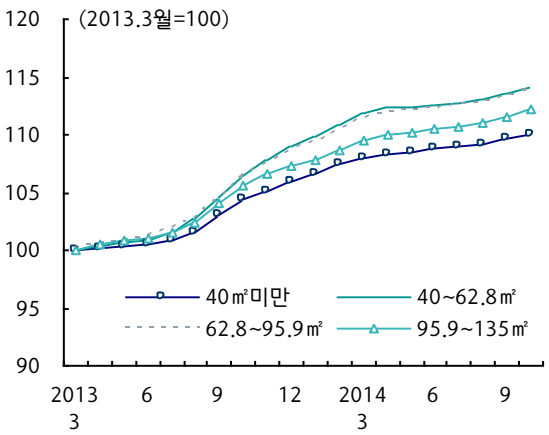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전월세 시장의 가격동향은 시장의 믿음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2014년의 전세시장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추이를 보이고 있다. 봄, 가을 이사철에 가격이 오르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 가을을 제외하면 가격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전국 전세가격의 상승률은

전월대비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



| 자료 : KB은행

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 지수



| 주 : 전용면적 기준 / 자료 : KB은행

3.2%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가격이 연평균 6.4%나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의 상승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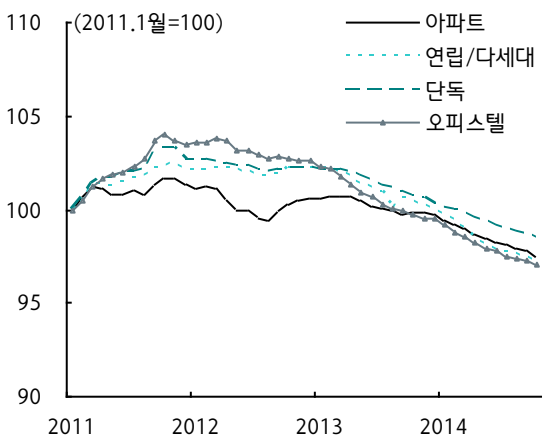
중소형 아파트가 전세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전용면적 40㎡(공급면적 기준 약 18평) 이하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전용면적 95.9㎡(공급면적 기준 약 41평) 이상의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신혼부부 등 30~40대 젊은 가구가 선호하는 20~30평형대의 아파트에서 전세가격은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다만 공급과잉이 가장 두드러진 오피스텔에서 가격하락폭이 가장 큰 반면 아파트의 월세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월세 공급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연립/다세대 등의 월세수익률은 5~6%에 이르는 반면,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비싸 월세수익률이 3~4%로 낮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 2011년 이후 아파트 규모별 월세 추이를 보면 66㎡(20평) 이하의 월세가 완만히 하락하는 반면, 20평 이상 아파트의 월세는 서서히 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평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월세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전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아직 명확한 흐름으로 자리잡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자금의 운용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전세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거나, 월세수익률이 낮아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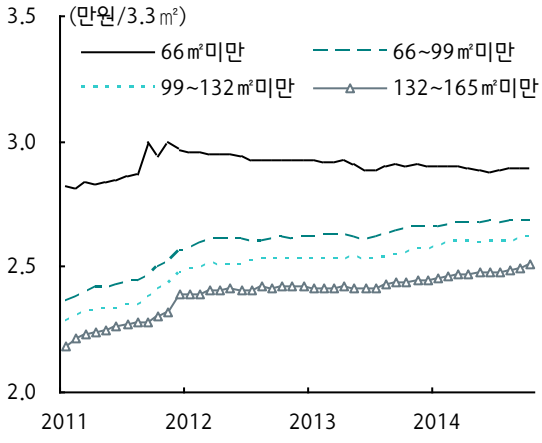
전세시장 불안정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은 월세로의 전환보다는 자가수요와의 경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매매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중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임대시장의 월세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대되더라도 매매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수도권 주요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앞으로도 이사철마다 전세가격의 상승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주택유형별 월세가격지수



자료 : 한국감정원

아파트 규모별 월세



자료 : 부동산114

역사와 전통이 깃든 전국의 소문난 빵집들

우리나라 대표 '국민 빵집'

우리나라 지역에는 그 곳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빵'인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을 넘어 전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유명한 빵집들이 있다.

1. 대전 '성심당'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현재 대전역과 대전 롯데백화점에 분점을 둔 성심당은 매번 긴 줄의 향연이 펼쳐진다. 주말이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이 곳의 대표상품은 '튀김소보로'다. 시중의 소보로 빵과 다른 점은 팥이 듬뿍 들어있고, 소보로를 기름에 튀겨냈다는 점이다. 튀김이지만 느끼하지 않고 바삭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구입을 많이 하며, 1993년 대전 엑스포 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일부러 대전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튀김소보로와 더불어 1986년 출시한 '판타롱부추빵'도 큰 인기다. 빵 안에 만두소처럼 부추, 채소 등이 푸짐하게 들어있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3개월에 한번씩 이익의 15%를 배분하는 성심당은 그날 팔고 남은 빵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등 '나눔의 철학'이라는 전통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2. 군산 '이성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이성당은 1920년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제과점을 인수해 '이성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앙금빵으로 군산의 명물이 되었다. 이성당의 앙금빵은 다른 앙금빵과는 다르게 앙금을 두 배로 넣고, 쌀가루의 얇은 반죽으로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1인당 10개로 구매가 제한이 되며, 하루에 1만개 이상이 판매되는 앙금빵은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지지 않아 몇 일 두고 먹어도 맛있다.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에 분점이 있어 서울에서도 이성당의 앙금빵을 맛볼 수 있으며, 채소를 마요네즈에 버무린 야채빵 또한 매일 '완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주 PNB '풍년제과'

1951년 문을 열어 3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반으로 자른 빵 사이에 딸기잼과 모카크림, 호두를 넣은 '수제 초코파이'는 풍년제과의 대표 빵이다. 평일 5천개, 주말 1만개 이상 팔려나가며 전주 한옥마을 관광 인기와 더불어 전주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꼽힌다. 단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화이트파이'를 추천하며, 서울에서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목동점, 무역센터점에서 PNB 풍년제과를 만날 수 있다.

4. 서울 장충동 '태극당'

서울에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빵집이 있다. 장충동(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 위치한 '태극당'은 1946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옛날에는 남녀가 빵집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이야기처럼 당시의 서울에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태극당은 '만남의 장소'였다. 1970년 당시 창업주가 개발한 모나카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운 과자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감자를 으깨어 각종 채소가 들어간 '야채사라다'도 인기 메뉴로 꼽힌다. 초창기에 사용했던 전통 주황색 포장지를 여전히 고수하는 태극당은 택배 발송을 하지 않아 철저히 방문객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또한 매스컴에 노출하지 않고 오로지 '빵'에만 집중하는 '장인정신'을 실천하며 태극당을 지키고 있다.

(하나은행 행복knowhow팀)

시간이 멈춘 곳으로 떠나는 여행

한국현대사 향수의 공간, 대학로 학림다방

1956년 6.25 전쟁 직후 문을 열어 55년동안 묵묵히 대학로를 지키고 있는 '학림다방'은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제25강의실이라 불렸다. 문리대의 축제명이었던 학림제에서 이름을 따온 학림다방은 옛날에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토론 장소로 쓰여 학생운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김지하, 이청준, 김승옥, 전혜린 등 서울대 문리대 출신 문인들의 아지트였다.

학림다방은 옛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의 음악은 58년째 여전히 클래식만 고집하고 있다. DJ 박스엔 요즘 보기 힘든 1,500여장의 LP판들과 베토벤 흉상도 볼 수 있으며, 신청곡이 있으면 LP를 이용하여 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학림다방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장소로도 자주 쓰이는데, '1박 2일'과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이후로 젊은 층의 발길이 늘었으며 김수현의 외국 팬들도 방문을 한다고 한다. 옛 다방의 모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학림다방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추억의 명소가 되고 있으며, 직접 로스팅한 블렌드로 커피를 만들어 커피 매니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외 근대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다방들은 다음과 같다.

– 전주 삼양다방 : 1952년 개장한 가장 오래된 다방이며 리모델링 후 재개장 과정을 거쳤다. 영화 소품 창고 구경이 가능하다.

– 대구 미도다방 : 대구 진골목에 위치하였고,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부여 금남다방 : 1968에 문을 열었고, 부여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위층에 자리하고 있다.

600년 역사가 담겨있는 서울의 명소 '북촌'

옛 것이 최고라며 옛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한 추억의 장소와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에 유행했던 옛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서울에도 있다. 서울 도심에서 오랜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명소인 '북촌'은 어떤 곳일까?

경복궁 동쪽길과 창덕궁 서쪽길 사이에 위치해있는 북촌은 예전 조선의 중심지로 서울 600년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사대부와 권문세가, 왕족들이 기거했던 곳으로 고풍스런 한옥의 정취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북촌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는 100년의 역사가 넘은 초등학교, 옛 향수를 자아내는 목욕탕과 소아과, 그리고 데이트 장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북촌의 보물창고인 종로구 화동 '정독도서관'이 있다. 안국동 네거리에서 풍문여고 골목길에 위치한 정독도서관은 조선시대 총포를 만들었던 화기도감 터였다. 겸제 정선은 이곳에서 인왕산을 바라보며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움이 담긴 '인왕제색도'를 그렸다고 한다.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300년 정도 된 회화나무와 물레방아는 정독도서관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이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역사도시 서울의 정경과 서울을 둘러싼 산들을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서울교육사료관에는 옛날의 문방구 앞 모습과 학교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두었으며, 추억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추억거리도 제공한다. 정독도서관에서 오른쪽 계동길로 향하면 있는 '북촌문화센터'에서는 북촌 전통문화를 감상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행복knowhow팁 행복 knowhow)

하나은행, The Banker/PWM誌 선정 '2014 최우수 글로벌 프라이빗 뱅크'상 수상

하나은행은 더 뱅커(The Banker)와 PWM이 공동으로 추최한 '제 6회 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14'에서 부문별로 전세계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에게 수여되는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되었다. 하나은행은 동 기관에서 3년 연속 '국내 부문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된 바 있다.

하나대투증권, '하나 글로벌 고배당 1등주 랩' 출시

하나대투증권은 국내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글로벌 배당주에 주목하여 '하나 글로벌 고배당 1등주 랩'을 출시했다. 동 랩은 시가총액 10조 이상, 배당수익률 4% 내외의 글로벌 대형주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분산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배당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외환은행, 국내 최초 원/위안화 통화옵션 거래 체결

외환은행은 11월 4일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M사와 국내 최초로 6백만위안(약 10억 5천만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옵션 거래를 체결했다. 이번 거래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자체 변동성을 활용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다양한 위안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생명, '크레파스 옮김' 캠페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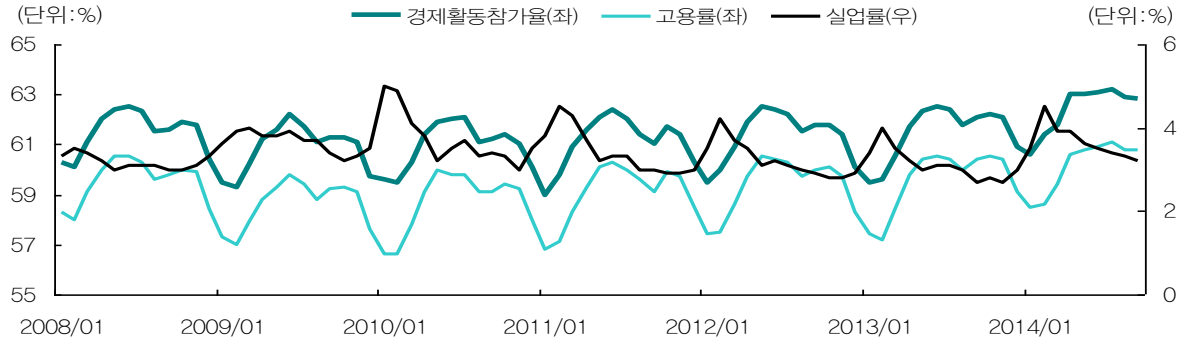
하나생명은 11월 1일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크레파스 옮김' 캠페인에 참여했다. 동 캠페인은 쓰다 남은 몽당 크레파스를 수거한 후 재가공해 미술교육이 취약한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는 나눔 운동으로 '옮김'이라는 NGO 단체를 통해 개발 도상국이나 국내 아동 복지 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9	62.4	8.7	63.3	76.2	80.8	75.8	39.9	60.2	7.9	57.4	73.8	79.0	74.1	38.9
2014.8	62.9	9.3	63.7	76.7	80.7	76.1	41.2	60.8	8.6	58.2	74.3	78.9	74.4	40.5
2014.9	62.8	7.8	62.9	76.6	80.8	76.3	41.7	60.8	7.3	57.5	74.4	79.2	74.7	41.0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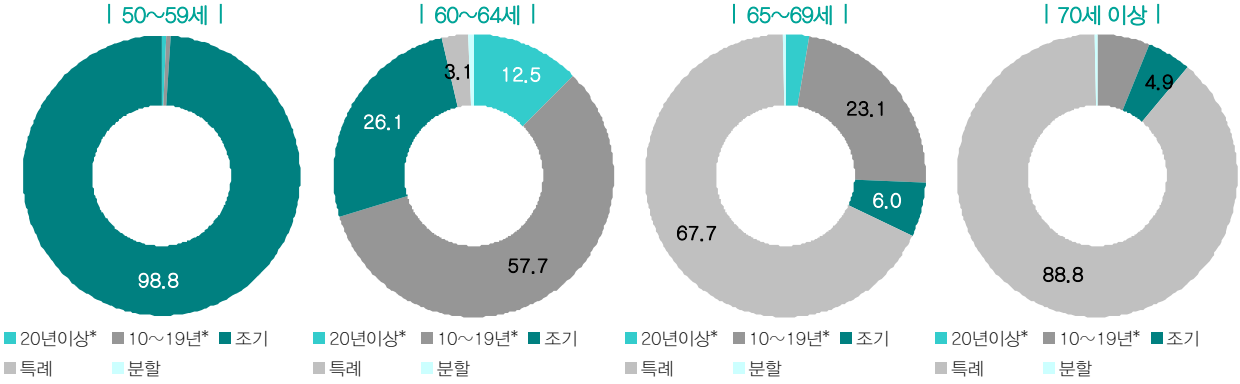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7	21,044,743	1,353,663	12,144,531	8,559,447	1,988,275	6,571,172	191,483	149,182

2. 2014년 7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8	390	4,103
2014.9	378	4,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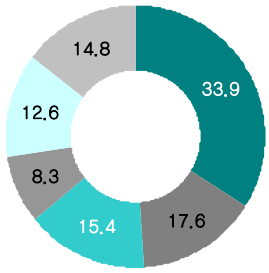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2. 2014년 9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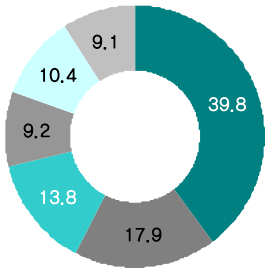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432	100,567
신한은행	632	45,192
우리은행	651	34,801
하나은행	351	23,144
농협	530	26,183
기타	627	23,049
합계	4,223	252,936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4년 6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8,185,898	5,514,116	1,490,927	82,465	1,380,822	92,408	124,387	46,629
생명보험	3,155,233	2,846,384	196,033	3,462	217,931	70,479	18,619	1,796
손해보험	1,121,094	1,023,589	61,506	260	58,908	1,937	19,704	228
증권	2,743,794	2,495,246	136,742	389	121,327	3,136	6,565	6,230
근로공단	126,269	–	123,786	403	31,103	–	30,894	209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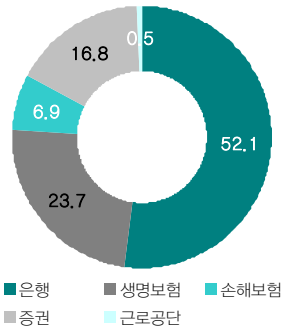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4,138	80,107	31.5	6,812	2.7	131,741	51.8	35,478	14.0
2014.3	259,986	80,746	31.1	6,868	2.6	136,963	52.7	35,409	13.6
2014.6	262,373	80,906	30.8	6,886	2.6	142,450	54.3	32,131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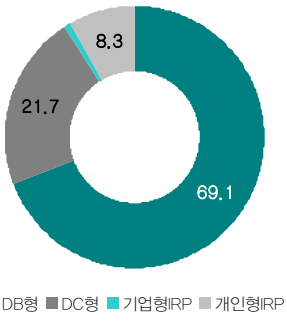
3. 2014년 6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75,102	604,869	190,328	6,967	72,938
은행	456,052	274,248	126,038	6,703	49,064
생명보험	207,657	172,171	24,881	206	10,400
손해보험	60,624	51,605	6,817	14	2,188
증권	146,728	106,845	28,592	27	11,265
근로공단	4,040	–	4,000	18	21

업권별 적립금 현황



상품 유형별 적립금 현황



4. 2014년 6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91,795	48.2	118,466	62.3	6,099	87.5	42,728	58.5	459,088	52.5
	금리확정형보험		223,779	37.0	20,554	10.8	149	2.1	8,512	11.7	252,994	28.9
	금리연동형보험		18,971	3.1	5,687	3.0	62	0.9	2,742	3.8	27,462	3.1
	국채		462	0.1	1,074	0.6	–	–	1,611	2.2	3,147	0.4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ELB		48,949	8.1	2,327	1.2	–	–	2,596	3.6	53,873	6.2
	RP		9,684	1.6	2,502	1.3	2	0.0	1,450	2.0	13,639	1.6
	발행 및 표지어음		–	–	158	0.1	–	–	50	0.1	208	0.0
	기타		–	–	1	0.0	–	–	7	0.0	8	0.0
원리보장금 소계			593,641	98.1	150,770	79.2	6,312	90.6	59,696	81.8	810,418	92.6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2	0.0	1,520	0.8	12	0.2	362	0.5	2,055	0.2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1,055	0.2	127	0.1	1	0.0	95	0.1	1,279	0.1
		혼합형	1,131	0.2	9,349	4.9	15	0.2	1,599	2.2	12,095	1.4
		채권형	4,312	0.7	25,570	13.4	593	8.5	4,149	5.7	34,624	4.0
		재간접	144	0.0	216	0.1	–	–	22	0.0	382	0.0
		부동산/실물/특별	111	0.0	–	–	–	–	–	–	111	0.0
		기타	1,028	0.2	–	–	–	–	–	–	1,028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7,944	1.3	36,782	19.3	621	8.9	6,228	8.5	51,574	5.9
	직접투자		563	0.1	157	0.1	–	–	348	0.5	1,068	0.1
실적배당 소계			8,507	1.4	36,939	19.4	621	8.9	6,575	9.0	52,642	6.0
대기성 자금			2,721	0.4	2,620	1.4	34	0.5	6,667	9.1	12,042	1.4
총계			604,869	100.0	190,328	100.0	6,967	100.0	72,938	100.0	875,102	100.0

5. 2014년 6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428,574	94.0	197,218	95.0	59,260	97.7	121,460	82.8	3,960	98.0
실적배당형	20,463	4.5	9,599	4.6	1,225	2.0	21,320	14.5	35	0.9
기타	7,015	1.5	840	0.4	193	0.3	3,949	2.7	45	1.1
합계	456,052	100.0	207,657	100.0	60,624	100.0	146,729	100.0	4,040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하나은행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전! 하나컬처클럽의 공연 할인 혜택을 지금 누려보세요.

뮤지컬, 연극

기간	2014.11.01 ~ 2015.02.01	2014.10.21~ 2015.01.18	2014.10.11 ~ 2015.01.04	2014.11.08 ~ 2015.01.04
장소	샤롯데씨어터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	디큐브아트센터	신도림 프라임아트홀
할인	VIP 20%, R 30%, S/A 40% 할인	VIP 20%, R 30%, S 30% 할인	VIP 25%, R 30%, S/A 40% 할인	60% 할인
기본가	VIP : ~~140,000원~~ → 112,000원 R: ~~110,000원~~ → 77,000원 S : ~~80,000원~~ → 48,000원 A : ~~50,000원~~ → 30,000원	VIP: ~~110,000원~~ → 88,000원 S : ~~88,000원~~ → 61,600원 A : ~~66,000원~~ → 46,200원	VIP : ~~130,000원~~ → 97,500원 R: ~~110,000원~~ → 77,000원 S : ~~80,000원~~ → 48,000원 A : ~~60,000원~~ → 36,000원	VIP : ~~60,000원~~ → 24,000원 R: ~~50,000원~~ → 20,000원 S : ~~40,000원~~ → 16,000원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

기간	2014.10.03 ~ 2014.11.30	2014.10.15 ~ 2014.11.23	2014.10.17 ~ 2015.01.04
장소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	대학로 한양레퍼토리
할인	60% 할인	40% 할인	최대 75% 할인
기본가	일반석: ~~25,000원~~ → 10,000원	일반석: ~~20,000원~~ → 12,000원	어린이: ~~20,000원~~ → 12,000원 어른: ~~20,000원~~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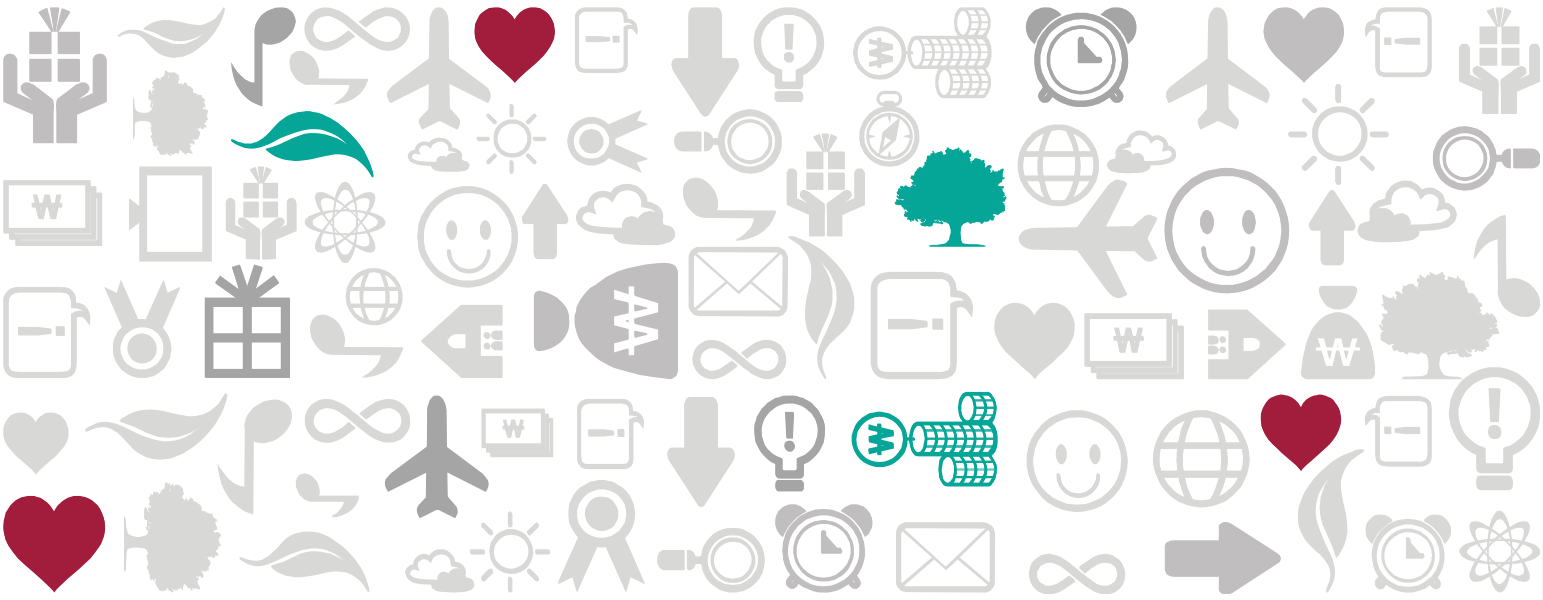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 인터넷에서 하나컬처클럽으로 검색하세요.

- 이용 방법 : 인터넷뱅킹 로그인 > 하나컬처클럽 이용동의 > 예매사이트로 이동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4.11[No.11]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